더 가디언 '전주의 맛' 영국에 소개

전주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 비빔밥의 고장 · 음식으로 대적할 곳 없는 도시로 설명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맛이 영국의 유력 언론매체인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소개됐다. '더 가디언'은 '데일리 텔레그래프', '더 타임즈'와 함께 영국의 3대 신문사로 손꼽히는 언론매체로, 전주가 영국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의 미식여행지로 급부상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더 가디언'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한 'A foodie tour of South Korea (대한민국 음식기행)'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주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비빔밥의 본고장 △한국에서 음식으로 대적할 곳이 없는 도시 등으로 소개했다.

이 기사에서 "한국의 음식이 동아시아 최고의 음식"이라고 극찬한 후, "중국음식보다 덜 기름지고 건강하며, 일식보다는 자극적이고, 색깔 있고 씹는 맛이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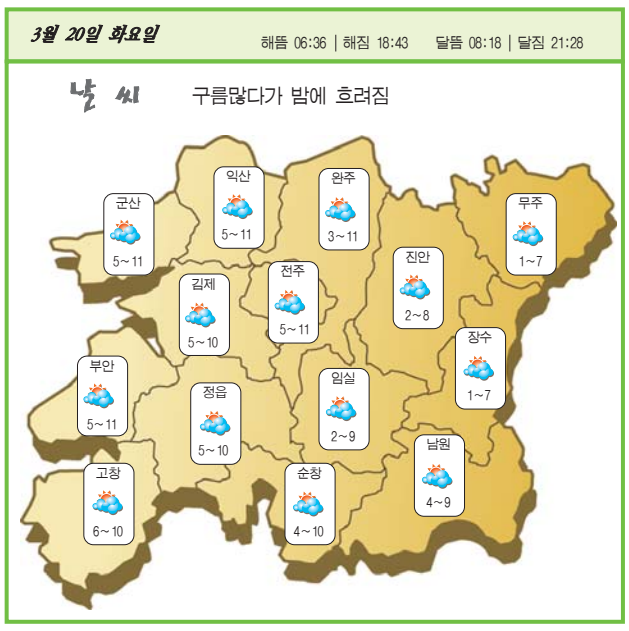
이 매체는 "전주는 2012년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로 '슬로푸드' 요리법으로 유명하다"라며 건조시키고, 절이고, 김치, 장류를 발효시켜 정교한 질감과 맛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주가 대한민국 음식의 수도'라며 "전주의 음식 라이벌이라고는 대적할 곳이 없으며, 한국전쟁 전으로 거슬러 평양 정도"라고도 언급했다.

이 매체는 또 전주 콩나물국밥을 숙취해소의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다'는 표현으로 음식(콩나물국밥)에 대한 만족감을 설명하기는 버겁다"고 극찬했다.

또한, 전주를 비빔밥의 본고장이라고 소개한 뒤 "서양에서 소울푸드 중 하나가 아이스크림이라면, 한국의 소울푸드는 바로 밥을 비벼먹는 것"이라는 재미있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외에도, 기사에서 한국 요리를 서양의 코스요리와 비교하며, "한국의 모든 음식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서양의 코스요리와 달리 중간 중간 코스가 나오기를 기다리느라 템포가 끊이질 않아, 같이 얘기하고, 웃고, 떠들 수 있어 진정한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다"고도 소개했다. /채규남 기자



덕진구, '편편한 투데이' 개최

전주시 덕진구는 19일 내부만족을 높이고 교류를 증진해 조직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편편(FUN·FUN)한 투데이'를 열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만큼 지난 겨울동안 현안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힐링이 되도록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됐다.

편편한 투데이의 2018년 첫 종목은 '한손줄씨름'으로 부서별 4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토너먼트 표에 따라 전 직원의 참여와 화합 속에서 이루어 졌다.

또한 덕진구는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재해위험지구 대형 사업장 일제점검

전주시는 19일 재해위험지구 대형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의 정밀한 점검을 위한 것으로 박순종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어은지구)와 해빙기 절개지 공사현장(진북1지구)을 잇따라 방문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 청취, 공사 현장의 각종 안전문제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다.

박순종 부시장은 "최근 발생되는 여러 재난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있는 실시를 통해 재난없는 안전한 전주 만들기를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봄 재촉하는 산수유 봄비가 내리고 있는 19일 오전 어느 대학 교정에 활짝 핀 산수유 꽃망울이 봄비를 머금고 있다.

김승환 "교육부 교장공모제 안 후퇴 유감"

"자격 제한 조항 둔 것 자체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위반하는 것"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교장공모제의 내부형 공모비율 폐지' 방침을 뒤집고 50%로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15%로 제한한 평교사의 교장공모 참여 비율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달도 지나지 않아 당초 입장을 뒤집고 '50% 이내'로 후퇴한 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15%든 50%든 자격조항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것 자체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평교사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15% 제한 조항은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자율학교가 최소한 7개가 되어야 1개 학교를 할 수 있다. 교육감 7년 동안 딱 한 차례 해봤다.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라면서 "무엇보다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는 제한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15% 제한조항을 둔 이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자격조항에 대해 하위법이 상위법보다 더 넓게 허용할 수는 있어도, 더 강한 제한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입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

한편 김 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이 도내 학교에서 내실있게 이뤄지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제성을 띨 우려가 있으므로 단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 교육자료 활용과 현장체험학습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천 자전거 봄길 함께 달린다

24일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 진행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봄기운이 완연한 전주천변을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자전거 행진을 펼친다.

시는 오는 24일 생태교통수단으로 자전거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2018년도 첫 번째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행진을 시작으로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총 6번의 자전거 행진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자전거를 탈 시민들은 오전 10시 시청광장을 출발해 공구거리와 전주천 자전거길, 바람쐬는 길, 원색장 마을, 전주천 자전거길을 지나 전주자연생태관에 도착하는 약 13km 코스를 함께 행진하게 된다.

특히 새봄을 맞아 시민들이 전주천의 풍경과 봄을 느낄 수 있도록 올해 첫 자전거 행진 코스를 전주천 자전거길 코스로 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주시 공영자전거의 이용 홍보를 위해 행진에 참여하는 시민 50명에게 공영자전거를 타고 행진할 수 있도록 공영자전거 체험단도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행진을 위해 덕진지역자활센터의 두바퀴 행복사업단에서 자전거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수리센터도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전주시민자전거행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맺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주시 자전거정책과(281-2562)로 전화 또는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단, 공영자전거 체험 신청의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50명에 한해 신청 받고 있으며 공영자전거 행진 참가자는 행진 당일 자전거의 대여·반납을 위해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올해도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홍보와 함께 안전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 시민 자전거 행진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가족, 친구와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함께 나와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안전한 행진을 위해 헬멧을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